제 1 교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2 제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공통 과목 정답 •

1	④	2	⑤	3	①	4	①	5	②
6	②	7	①	8	④	9	③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③	19	①	20	④
21	⑤	22	①	23	③	24	④	25	②
26	②	27	⑤	28	④	29	⑤	30	③
31	①	32	②	33	③	34	④		

•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

								35	①
36	③	37	④	38	④	39	③	40	②
41	③	42	②	43	②	44	⑤	45	④

•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

								35	②
36	④	37	⑤	38	①	39	②	40	②
41	⑤	42	⑤	43	②	44	⑤	45	④

• 공통 과목 해설 •

[1 ~ 3] 독서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82쪽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읽기 중에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초인지적 지식에 해당한다. 즉 배경지식에 따라 앞으로의 내용을 예상하는 것은 초인지적 지식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읽기 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초인지적 제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으로 보아 읽기는 글을 통한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② 읽기 목적에 대한 인식 등 자신이 인식한 바를 점검하는 것도 초인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읽기 계획을 세우고 읽은 후에 점검하는 등 초인지적 제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 ⑤ 정형화된 책 형태가 아니라 하이퍼링크로 문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읽기를 할 때에 읽기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더 쉽다.

2. [출제의도] 구체적인 독서 활동에의 적용

[보기설명] 한 학생이 독서 활동을 시행하면서 그 과정을 정리하여 담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독서의 세부 과정들이 초인지적 지식의 활용에 해당하는지 초인지적 제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며 파악해야 한다.

[정답풀이] ⓑ에는 인상주의에 의해 여러 예술 사조들이 태동한 이유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는 활동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활동은 제어에 해당한다. ⓔ에는 그 질문과 관련하여 책을 읽으며 이해한 바를 요약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 활동이 나타나 있다. 이 역시 제어의 모습이다. 이는 책을 요약하며 답을 얻은 것이지 읽기 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초인지적 지식에 해당하는 모습이라 보기 힘들다.

[오답풀이] ① ⓐ에는 읽기 목적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에는 예전에 배웠던 배경지식에 기초하여 책의 내용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초인지적 지식의 정신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는 난해한 내용이 있을 때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백과사전을 활용하는 제어의 정신 작용을, ⓓ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혀서 연표를 참조하며 읽는 방법으로 읽기를 조정하는 제어의 정신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어와 관련된 기능들은 보다 세련된 인지적 자원의 습득을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에는 연표 활용을 통한 화가들의 선후 관계 지식 습득이, ⓔ에는 요약을 통한 지식 습득이 나타난다. ④ ⓐ에서 읽기 목적을 떠올리는 것은 인지적 자원에 대한 앎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는 예상과 달리 난해한 내용이 곳곳에 있어서 사전 활용 등으로 읽기 전략을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출제의도] 특정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 추론

[정답풀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문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읽기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쉽다. 즉 책을 읽을 때에 비해 읽기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전략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초인지적 제어의 정신 작용에 해당한다. 자신의 사고나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은 초인지적 제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보다 활발하게 해야 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정형화된 형태로 재구성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전략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읽는 방법이라 보기 힘들다. ③ 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읽기 전에 세웠던 계획들을 상황에 따라 조정해 가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인터넷에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기는 하다. 다만 이것이 자신의 인지적 자원에 비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읽기 전략의 적절한 조정이라 보기 힘들다. ⑤ 읽기 목적을 잃기 쉬운 상황이므로, 오히려 읽기 목적을 계속 떠올리며 그에 맞춰 읽기 전략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4 ~ 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42쪽

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풀이] (가)는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와 주자, 도가를 대표하는 노자를 중심으로 유가와 도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도덕경』에 대한 조선의 주석서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역사적 논쟁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논쟁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유가와 도가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와 주자 그리고 노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들 사상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도가 사상의 주석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④ (나)가 도가 경전인 『도덕경』에 대한 주석서들 간의 내용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는 도가 사상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도가 경전에 대한 주석서의 유형을 분류하는 부분이 없으며, (나)에는 이들 주석서의 분류 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는 부분이 없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노자는 일체의 목적성과 인위성을 배제하려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도를 따르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에도, 또 이 목적을 위해 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도가 사상에서는 도란 사람들의 인식을 초월한 것으로 여긴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유가 사상에 따르면 도란 도덕 실천의 규범이자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이치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인의를 도덕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③ 유가 사상에 따르면 규범으로서의 도는 하늘의 도, 인간의 도, 신하의 도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될 수 있다. 반면 도가 사상에 따르면 도는 인식, 규범, 제도 등을 초월하여 세상의 근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규범적이지도 않고 규범에 따라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④ 노자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자연적인 본성으로 간주하여 줄여야 할 것으로 보았을 뿐,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에 따르면 사회 혼란의 원인은 사사로운 욕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와 규범 등의 인위적인 것이 부정의 도구로 악용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노자에 따르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 앞에 겸허함을 갖추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자는 노자의 사상을 유가적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도가에서 제시하는 수양을 긍정적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6. [출제의도] 두 대상의 관계 파악

[정답풀이]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도덕경』)의 이해가, 박세당의 ㉡(『신주도덕경』)에서는 무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절제 혹은 마음 비움을 토대로 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 ㉠의 이해가, 이이의 ㉡(『순언』)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 이이는 이러한 이해가 유가적 입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당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③ ㉠에 따르면 인위적인 것에 의해 사회 혼란이 초래된 상황에서 인의의 강조는 거짓된 선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이해가 이충익의 ㉡(『초원담로』)에서는 유가적 입장에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탈유가적 입장에서 긍정되고 있다. 이충익에 따르면 '절인기의'에 관한 노자의 진의는 이름만 남은 거짓된 인의와 참된 인의의 구분에 있기 때문이다. ④ 박세당은 ㉡(『신주도덕경』)에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당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도가적 입장에서 ㉠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유학자의 입장에서 ㉠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한 것이다. ⑤ 박세당은 ㉡(『신주도덕경』)에서 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려 하지 않았고 또한 인의의 실천을 배척하려는 ㉠의 의도를 수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를 수용하는 내용이 ㉡에 담겨있을 리 없다. 노자의 진의를 밝히려 한 사람은 박세당이 아니라 이충익이다.

7. [출제의도] 특정 관점에 대한 반박

[정답풀이] ㉮는 노자의 의도에 대한 이충익의 해석이다. 인의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인위성을 배제하고 소사과욕을 따를 때 인의가 저절로 행해진다는 것으로, 이는 유가적 입장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규범의 인위성과 목적성을 강조하는 주자의 입장에서는, 무위를 내세우며 개인의 마음에서 홀로 인욕을 줄인다고 해도 공동체의 규범인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서 그저 공허함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현실에서 각종 제도나 규범이 부정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노자이지 주자가 아니다. 또한 주자가 현실에서 겸허함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인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도 보지 않으므로, 주자가 이를 비판의 논거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③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자는 도가에서 제시하는, 인간 본성을 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복하려는 수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비록 인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욕심을 줄이기 위해 본성을 회복하려는 도가의 수양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④ 주자가 인의가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맞다. 다만 그에게 사회 혼란의 원인인 사사로운 욕망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노자를 비롯한 도가의 입장이다. ⑤ 인위적인 것을 초월한 자연의 운행 원리를 좇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자가 아니라 노자이다. 따라서 주자가 이를 반박의 논거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의 관점을 새로운 관점과 비교

[보기설명] 『도덕경』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인 서명응의 『도덕지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주석서에 등장하는 노자 해석과, (가), (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노자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문의 내용이 '절인기의'에 초점을 두고 각 입장을 기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의 주자의 입장을 별개로 치면, (나)의 주석서의 입장은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이이의 『순언』은 철저히 유가적 입장에 입각하여 '절인기의' 자체를 배제하는 입장이고, 둘째, 박세당의 『신주도덕경』과 홍석주의 『정로』는 『도덕경』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유가적 입장에서 '절인기의'를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초원담로』에 보이는 이충익의 입장은 주자학에서 벗어나 노자의 사상에 더 다가선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인의와 관련하여 서명응의 입장을 이러한 입장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도덕지귀』에 나타난 서명응의 입장은 인의를 『도덕경』의 본말론(本末論)으로 해석하여 재수용하는 것이다. 이 입장이 유가와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나)의 『정로』와 다른 것은 맞다. 다만 서명응은 사사로움에 대한 노자의 입장에 의거해 사사로움에 대한 개념을 수용한 것이지 유학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사사로움을 제거하려는 것보다 겸허함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도덕경』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박세당과 홍석주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자는 당면한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노자의 사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였다. 『도덕지귀』에는 노자가 당면한 혼란의 극복을 위해 인의의 강조보다 겸허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서명응 역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취지에서 『도덕경』에 대한 해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도덕지귀』에서는 인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절인기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나)의 『순언』과 다르다. 그리고 인의에 매달리지 않고 근본인 도의 실현을 통해 말단인 인의를 저절로 유지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유가적 입장에서 다소 벗어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의 『신주도덕경』에서 박세당은 무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의 부정과 관련해서는 노자가 근원적으로 모순적이라고 단호히 비판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인의가 인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도덕지귀』에 나타난 서명응의 입장은 도가에 보다 가까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⑤ 이충익의 『초원담로』에서는 '절인기의'를 통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인의의 실천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으로만 남은 거짓된 인의를 버리려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서명응의 『도덕지귀』 역시 노자의 진의가 인의의 배제가 아니라 인의의 자연스러운 실현에 있다고 본다. 이충익과 서명응은 모두 인의를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인위적인 규범으로 강조하기보다 개인의 도덕적 자각에 기초한 개인적인 도덕률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의 적절성 파악

[정답풀이] ⓒ의 '치부하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기다.'라는 뜻이므로 '여기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 ~ 13] 기술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dSVDD 모델의 목적 함수는 양품의 점들을 가급적 가깝게 모이도록 하는 목적을 띤다. 이를 둘러싸는 가급적 작은 원을 경계선으로 삼아 그 밖의 점들을 불량품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다. 즉 불량품의 점들이 무리 지어 모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양품의 점들을 묶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오답풀이] ① 머신 비전은 사람의 작업을 대신하는데, 사람이 선별하던 작업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작업을 한다. ② 다량의 학습 이미지를 토대로 진행하는, 불량 검사를 위한 학습은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좋은 모델일수록 더 정확하게 불량 검사를 할 것이다. ③ 근래에는 제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할 불량품 이미지를 충분히 얻기 힘들다. ④ dSVDD 모델을 얻기 위한 학습 과정은 구간마다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는 가중치를 고정한 채 새로운 원의 중심을 찾아 반지름을 줄이는 것이다. 즉 원의 중심이 학습 초기부터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원의 중심을 조정하면서 반지름을 최대한 줄인다.

11. [출제의도] 기술 적용에 대한 추론

[정답풀이] 머신 비전에 의한 전통적인 불량 검사 역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불량을 판별하는 대신에 머신 비전이라는 시스템이 하는 불량 검사이다. 즉 불량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아니라 머신 비전이 놓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레이블링은 사람이 학습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에 대한 정답을 표시해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레이블링을 거친 학습 이미지는 그 안에 담긴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에 대한 정답이 확인된 것이다. ③ 머신 러닝 모델이 완성되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불량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제품이 경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선에 따라 그것이 불량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경계 영역이 클수록 좋은 모델이므로, 경계 영역은 학습 과정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평면에서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반드시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최선의 직선을 그리더라도 양품이 모여 있는 쪽의 반대쪽 끝에 불량품들이 일부 포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dSVDD 모델을 활용하여 경계선을 원형으로 그리지 않는 한 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을 충분히 거치더라도 불량품이 양품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머신 러닝 모델이나 dSVDD 모델은 모두 이미지 분석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 분석은 양품과 불량품을 가르는 기준으로 정해진 특성들에 대한 수치화 작업이다. 이미지 분석 후 직선이나 원을 그려 양품과 불량품을 가르는 방법으로 보아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두 가지 방식의 비교

[정답풀이]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 이미지가 학습 대상으로 추가될 때 그것이 경계 영역에 속하는 등 경계선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경계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dSVDD 모델)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다른 학습 방식을 적용하는데, 원을 고정한 채 가중치를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경계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답풀이] ① ㉠을 위한 학습 초기에는 최적의 경계선을 찾지 못한다. 우선 무작위의 직선을 상정한 후에 학습을 진행하면서 변숫값을 조정하며 최적의 경계선을 찾아 간다. ② ㉡이건 ㉠이건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분석 후에 특성들이 모두 동일한 두 학습 이미지는 결국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것이다. ④ ㉡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목적 함수의 가중치가 조정됨에 따라 양품과 불량품 점들의 위치가 조금씩 조정되며 경계 영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양품의 점들이 점차 모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새로운 학습 이미지에 따라 새 점들이 나타날 뿐 양품과 불량품 점들의 위치가 조정되지는 않는다. 추가되는 점들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조정할 뿐이다. ⑤ ㉡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 목적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직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 그저 이미지 분석 후에 목적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평면의 점들로 매핑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1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설명] 핸드폰 케이스의 불량 검사를 위해 dSVDD 모델을 활용하는 학습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가로 길이'와 '모서리 곡률' 두 특성만을 활용하며, 동일한 학습 구간의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목적 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평면인 ⓐ와 ⓑ가 제시되어 있다. 두 평면에서 원의 중심인 c와 반지름인 R이 동일하다는 조건에 따라 ⓐ와 ⓑ가 포함된 구간이 어떠한 학습 구간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답풀이] ⓐ와 ⓑ에서 원의 중심인 c와 반지름인 R이 동일하므로, 이 학습 구간은 원을 고정한 채 기존의 흰 점들을 포함하여 양품의 점들이 원의 중심에 가까워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흰 점이 더 가깝게 모여 있고 점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가 ⓑ보다 나중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흰 점들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중치인 W가 조정된 결과로, ⓑ의 흰 점 들에서보다 원의 중심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흰 점까지의 거리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검은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경계 영역이다. 추가된 검은 점으로 인해 ⓐ의 경계 영역은 ⓑ의 경계 영역보다 더 작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경계 영역이 항상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불량품 이미지로 인해 경계 영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③ 이미지 분석 직후에 얻을 수 있는 평면은 목적 함수가 적용되기 전의 평면이다. 그런데 ⓐ, ⓑ는 이미지 분석 직후에 얻은 평면에 목적 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새로운 평면이다. ④ ⓐ, ⓑ는 '가로 길이'와 '모서리 곡률'의 값을 X와 Y로 삼는 평면이 아니다. 이미지 분석 직후에 얻은 평면에서 매핑을 거치면 새로운 평면에서는 X와 Y도 새롭게 설정된다. 또한 목적 함수가 어떠한 것인지도 몰라서 ⓐ, ⓑ를 보고 매핑 전의 평면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매핑 전 평면에서 어떠한 직선을 그어도 반드시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⑤ ⓐ에서는 원형 경계선이 흰 점과 검은 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점들의 개수로 보아 ⓐ는 여전히 학습의 초기 상태이므로 이 상태로는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다. 더구나 수만 개의 학습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오류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

[14 ~ 17]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2쪽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풀이] 2018년 대법원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인정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의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독립 사용자성은 종속 노동성, 전속성과 더불어 사용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에 해당한다. ② 2022년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 개정을 통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노무 제공자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③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일각의 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사용 종속성을 근로자성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이 그 속성으로 볼 때 사용 종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④ 독립 사용자성이 낮을수록 사용 종속성은 높게 평가된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면 이는 독립 사용자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종속성은 높게 평가된다.

15. [출제의도] 특정 개념 이해

[정답풀이] 학습지 교사처럼 근로자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서의 성격도 갖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사용 종속성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여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용 종속성이 높으면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 종속성이 낮으면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전속성이 낮은 업무일수록 사용 종속성이 낮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 반대로 전속성이 낮으면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노동자가 손실 발생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면 독립 사용자성이 높아 근로자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여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⑤ 2022년 이전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성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1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설명] (가)에는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백화점 판매원 갑이 제시돼 있다. 근로자성 부여를 위한 사용 종속성 판단 징표 중에, 업체가 업무에 관한 명령을 하달한 것은 종속 노동성 징표이고, 갑이 자기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쓴 것은 독립 사용자성 징표이다. (나)에는 산업 재해 신청이 거부된 플랫폼 노동자 을이 제시돼 있다. 을은 제삼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근로를 제공했지만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2022년 법 개정 이전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 근로를 제공해야 했지만, 2022년 법 개정 이후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서 을의 업무가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직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산업 재해 신청이 거부된 것은, 업체 여러 곳에서 중개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면 노무 제공자로서 을의 산업 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업체가 매장의 일반 관리 지침과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하달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가 제공되는 것으로 종속 노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는 단일 사업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전속성과는 무관하다. ② (가)에서 갑이 휴가 중에 대체 인력을 써서 판매 업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은 제삼자를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삼자 고용은 갑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삼자 고용과 무관하게 직종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다만 제삼자 고용은 갑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④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에서 을의 업무는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었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산업 재해 신청이 거부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여러 곳에서 중개를 받은 것, 즉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서 그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⑤ (나)에서 을의 업무가 위치 추적 기능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과정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동음이의어 파악

[정답풀이] ⓒ의 '제재(制裁)'는 문맥상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이라는 의미이며, ③의 '제재(題材)'는 '예술 작품이나 학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재료.'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8 ~ 21] 고전 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임진록」 (수능특강 319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풀이] 종일은 자신의 처소 '사면에 비단 장막을 드리우고 장막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 요란'하게 나도록 해 두어, '불우지변(= 뜻밖의 변고.)을 방비'하였다. 즉, 자신을 습격하는 자가 있으면 잠을 자던 중에도 알아챌 수 있도록 방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응서는 자신이 '무재(= 재주가 없음.)'하다는 말로 원익의 청을 거절하려 했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원익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려 한 것이다. ② 응서가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원익이 응서에게 보검을 준 것은 응서가 진중에 합류한 다음의 일인 것이다. ④ 종일을 죽인 후에 응서와 기생이 평양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왜장 평수맹은 '한칼로 기생을 베'어 죽였다. ⑤ 응서는 종일의 암살을 실행하기에 앞서 원익에게 '한 무리 군사를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사기(일이 되어 가는 형세)를 보아 접응(맞아들여 응함)하'도록 해 달라고 청하였고, 그랬기에 종일을 죽인 후에 응서가 평양성 밖으로 탈출했을 때에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응서가 아군의 군사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19.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풀이] ㉠은 종일에게 대적할 만한 장수를 얻어야만 종일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 자신의 휘하에 적장과 대등하게 싸울 인물이 없다는 판단이 담긴 말이므로, 적장을 제압할 방법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원익이 휘하 장수들을 모두 모아 놓고 이 말을 했음을 고려하면, 이 말에는 종일과 대적할 만한 인재를 천거해 줄 사람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은, 어떤 군사가 '소인의 동리'에 '김응서'라는 '세상에 드문 장사'가 있다고 하자 원익이 그 군사에게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묻는 말이다. 이후 원익이 응서를 찾아 데려오려고 용강에 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어디로 가면 상대가 언급한 인물, 즉 응서를 만날 수 있는지 알아내어 그곳으로 찾아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에는 '사경(=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이 되어야만 종일이 듣거나 보지 않고 완전히 잠든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 즉, 종일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간대를 알려 주는 것이다. ④ ㉣은 상대(응서)가 자신(기생)을 평양성에 두고 떠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므로 자신을 데리고 가 달라는 말이다. ⑤ ㉤은 자신들의 장수를 암살한 상대가 무사히 평양성을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평의지가 이 말을 한 후에 응서에게 칼을 들고 달려든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상대를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A]는 종일의 처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중심인물(응서)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B]는 응서가 평양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와 귀환하기까지의 상황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만, 그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종일이 술에 취해 장창과 보검을 쥔 채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 목이 잘리고도 칼을 휘두르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행동과 모습 등을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② [B]의 '그 봉예(= 예봉. 창이나 칼 따위의 날카로운 끝. 날카롭게 공격하는 기세.)를 뉘 능히 당하리오', '(응서가) 비록 용맹하나 ~ 기력이 기진한지라'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능력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는 응서와 종일의 대결 구도를 통해, [B]는 응서와 평의지, 평수맹, 적병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장면을 긴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⑤ [A]는 응서가 종일을 암살하는 사건을, [B]는 응서가 적진을 탈출하여 귀환하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적(평행장)은 응서가 종일을 암살한 것이 '간계(= 간사한 꾀.)'와 '불의'라며 비난하고 있을 뿐, 응서의 비범함을 두려워하여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 인마를 다 죽여 분을 풀'겠다며 전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원익은 휘하에 적장 종일과 대적할 장수가 없는 상황에서 응서가 '세상에 드문 장사'라는 말을 듣고 몸소 '용강'까지 그를 찾아간다. 이와 같은 서사는, 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응서는 '부친상 중'이어서 원익의 청을 거절하다가, '방금(지금) 국세 위태하니 신자(벼슬아치와 백성을 통틀어 이르는 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겠느냐는 원익의 말을 듣고 전장에 나선다. 또한 기생은 응서를 돕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응서에게 협조한다. 이는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양반인 응서가 기생의 도움을 받아 적장의 머리를 베는 서사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서로 다른 계층의 인물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④ 왜장 종일이 목이 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린 상태에서도 괴력을 발휘하여 응서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은, 왜장을 비현실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는 전란의 체험에서 비롯된 공포가 반영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2～27] 시나리오－현대 소설 통합

➔ **연계지문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수능특강 221쪽) | 박경리, 「토지」(수능특강 224쪽)**

22. [출제의도] 공간의 성격 및 기능 이해

[정답풀이] ㉮에서 막달네는 마을 사람 다수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봉기는 삼수 덕에 쌀밥만 먹는다며 봉기를 욕한다. 또 봉기가 삼수와 자신 사이에 대해 기분 나쁜 소문을 냈다며 욕하는 막달네에게, 야무네는 막달네도 삼수에게 기민미를 받았으니 그런 소문이 날 법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 대화를 통해 어떤 사람은 삼수에게서 기민미를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굶어 죽을 처지임에도 기민미를 못 받았음이 드러나고, 기민미의 분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도 드러난다. ㉯에서는 최 참판가의 주인인 서희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고방에서 곡식을 꺼내고, 윤보를 비롯한 마을 장정들이 그 곡식을 받아 가려 하고 있다. 윤보 등은 곡식이 불공평하게 분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희에게 이를 알렸으며, 서희는 그 말을 듣고 곡식을 받지 못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주려 하는 것이다. 즉, ㉯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불공평한 곡식 분배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는 앞으로 분배될 기민미에 대한 기대감이 공유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분배된 기민미에 대한 뒷공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는 곡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공간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응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③ ㉮에서 야무네와 막달네는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분배한 삼수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곡식을 불공평하게 분배한 것에 책임이 있는 인물인 준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에서 막달네와 야무네가 기민미의 분배 기준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에서 곡식 분배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요소가 폭로되고 있지도 않다. ⑤ ㉮에서 기민미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에서 드러나는 곡식 분배에 대한 서희 측과 준구의 입장 차이는 오해라고 할 수 없으며, 양측 사이의 오해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23.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풀이] ㉢은 최 참판가에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이 기민미를 불공평하게 분배한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삼수가 피신해 있겠다고 하면서 준구에게 하는 말이다. 자기는 준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를 테니, 그 자리에 없는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모르는 체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준구에게 나름의 위기 모면책을 일러 주는 것이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옹호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막달네가 봉기에 대해 하는 말로서, 봉기가 막달네 자신에 대해 '앰한(='애매한'의 준말.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원망이 담겨 있다. ㉠에 이어지는 '삼수하고 나하고 우째?'라는 말을 통해, 봉기가 삼수와 막달네의 관계에 대해 불쾌한 소문을 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에는 막달네가 삼수로부터 기민미를 받았으니 삼수와의 관계에 대해 기분 나쁜 소문이 날 법도 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④ ㉣은 자신이 서희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열쇠를 받아 와 고방 문을 열고자 했으나, 고방 열쇠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아씨(준구의 아내 홍 씨를 말함)'가 열쇠를 내놓지 않아서 고방 문을 부수는 결과가 생겼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현장에 있지 않은 제삼자 '서울 아씨'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⑤ ㉤은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소개기(='쇠고기'의 방언.)' 같은 먹을거리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는 것인데, 사람이 굶주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참고로, ㉤에 앞서 윤보는 '삼수 놈이 중도에서 곡식을 ~ 그 사단(=사건의 단서.)을 캐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싶다고 하는데, 이는 삼수가 곡식을 불공평하게 분배한 배후에 준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치는 말이다. 윤보는 이 말 뒤에 ㉤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준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준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4. [출제의도] 연출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풀이] S#161에서 윤보는 기민미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형편이 남보다 나은 두만 아비가 기민미를 받은 것을 지적하고, 두만 아비는 자신이 받은 기민미로 죽을 쑤어 남들과 나눠 먹었다고 변명한다. 이에 대해 윤보는 '덕분에 인심 썼구만.'이라는 말로 은근히 두만 아비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서로의 처지에 대한 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S#159의 지시문에 나오는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메마른 보리의 모습, 기우제의 모습, 기민미 분배 장면 등은 서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장면들이지만, 그것들을 연결하여 보여 줌으로써 흉년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몽타주, 즉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편집 방식에 해당한다. ② S#159에서는 지시문에 나오는 각각의 장면과 내레이션의 해당 부분이 함께 제시될 때에 장면의 의미가 관객들에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메마른 보리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때에 '1903년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보리 흉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고, 기우제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때에 '기우제는 아무 영험도 없이~'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게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③ S#160의 시작 부분에서는 막달네가 우물가를 지나가는 봉기를 바라본 후 대사를 시작하도록 하면 '저놈네 집구석에는 쌀밥만 묵더라' 등 막달네와 야무네가 주고받는 대화가 봉기에 대한 것임을 관객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⑤ S#163의 '냅다 달아나 버린다.'는, 밤중에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워 그들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삼수가 취한 행동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는 고방 안에서 곡식을 꺼내던 수동이 준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움직임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준구는 '소동'의 내막을 알고자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고 수동은 준구의 그 말소리를 듣고 맞대응을 하려고 고방 안에서 나온다. 이 장면에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려 하는 것은 수동이 아니라 준구이며, 수동은 다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참고로 수동은 오래 전에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몸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이루어진 서술은 '소동이 벌어진 고방 앞'에 막 도착한 준구의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참판가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위세를 부리던 준구의 입장에서, 그 재산을 침탈하는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급하게 고방 앞에 갔을 때, 주위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최 참판가의 진짜 주인인 서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는 준구가 받은 그 충격을 '그곳에 서희가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드러낸 후에, 이후에 움직였을 그의 시선에 따라 서희의 바로 옆에 있는 봉순이와, 고방 밖에서 곡식을 받으려고 서 있는 마을 장정들, 그리고 고방 안에서 곡식을 끌어내고 있는 하인들의 순으로 인물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③ ⓒ는 윤보의 말에 담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준구의 심리를 '와들와들 떤다'고 하는 현재형의 외양 묘사를 통해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준구의 호통에도 꿀릴 것 없다고 생각하는 윤보가 준구에게 능청스럽게 대꾸하다가, 이제까지의 말로도 모자라 '장광설(=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또는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시작할 기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서술자가 단정적인 진술로 논평한 부분이다. 이는 윤보가 거리낌 없는 태도로 준구와의 대치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는 서희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된 서술이다. ⓔ의 다음 문장은 (고방을 부수고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는 상황의 심각성과 별개로) 어린 서희가 밤늦은 시각으로 인해 졸음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서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로써 그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먼저 제시한 것은, 이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독자의 주목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풀이] 서희가 마을에 곡식이 고루 나눠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수동의 말에 준구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따진다. 그러자 윤보는 '소인이 애기씨께 말씸드맀십니다.'라고 스스로 나서서 밝힌다.

[오답풀이] ① 준구는, 수동이 공평치 못한 처사에 대해 언급하자 무엇이 공평치 못했는지 따져 묻고, 수동이 곡식 분배가 공평치 못했다고 답하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다시 따져 묻는다. 준구의 태도에는 자신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았음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 있으며, 준구가 공평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마을 장정들이 최 참판가에 온 것은 최 참판가의 당주(=지금의 주인.)인 서희가 주겠다고 한 곡식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서희가 아니라 윤보이다. ④ 준구에 의해 고방 문 부순 죄를 추궁당한 것은 수동이고, 수동은 그것이 서희의 명에 따른 행동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맞섰다. 준구가 서희를 추궁한 적은 없으며, 마을 장정들이 스스로 고방을 부쉈다고 한 적도 없다. ⑤ 수동은 얄미운 준구에게 능청스럽게 대꾸하는 윤보의 말을 재미있게 듣느라 방심하고 있다가, 서희의 재촉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수동이 윤보의 장광설을 못마땅해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보기>에 따르면 준구는 최 참판가의 재산을 욕심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수동 등이 고방 문을 부수고 곡식을 꺼내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애기씨(서희)의 분부'라는 말을 듣고는 그 '분부'가 부당하다고 따지지 못하며, '당주(=지금의 주인.)님이 주시겄다는 곡식 얻어 가는' 것이 죄가 되겠느냐는 윤보의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한다. 최 참판가의 재산을 좌우할 권리가 '당주'인 서희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에 서희에게는 따지지 못하고 '어린것을 꾀어서 이따위 짓'을 했다며 서희 편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화를 낼 뿐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막달네는 봉기가 삼수 덕분에 흉년에도 쌀밥만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수가 기민미를 분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윤보의 문제 제기처럼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지경인 집은 그냥 두고 굶지도 않는 집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에 기민미가 제공된 것은,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준구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 기민미로 마을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두만 아비는 기민미를 받았다는 점에서 준구의 덕을 본 인물이지만, 굶는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만 쌀밥을 해 먹은 봉기와 달리 기민미로 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었다는 점에서 마을의 민심에 신경을 쓰는 인물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수동이 '증오에 타는' 눈으로 준구를 대하는 것에서 준구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고, '애기씨(서희)의 분부'에 따랐을 뿐이라고 당당히 대꾸하는 것에서 서희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구가 최 참판가의 재산을 욕심내고 있으며 수동의 태도가 준구에게 영합하는 삼수와는 다르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수동의 태도가 최 참판가의 진짜 주인이 서희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8 ~ 31] 고전 시가

➔ **연계 지문 : 권호문, 「한거십팔곡」(수능특강 312쪽)**
➔ **이상계, 「초당곡」**

2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제8수>의 초장에서는 '출하면 치군택민'과 '처하면 조월 경운'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제1수>에는 명령적 어조가, <제3수>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제4수>에는 문답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제17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핵심 시어를 중심으로 한 작품 이해

[정답풀이] <제8수>에서는 '출하면 치군택민'하고 '처하면 조월 경운'하는 것이니, '명철 군자'는 처지에 따라 둘 중 어느 쪽이든 구애될 것 없이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17수>에서는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이니 '은커나 현커나(은거하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따라야 할 '성현'의 '도'는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곧 '처'하든 '출'하든(은거하든 관직에 나아가든)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제17수>에서 '성현의 가신 길'이 '한가지'임을 강조한 것은 <제8수>의 '명철 군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하는 삶도, '처'하는 삶도 모두 '즐기'는 '명철 군자'의 자세를 긍정하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출'에 대한 화자의 관점, 즉 '출하면 치군택민(관직에 나아가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잘 다스림)'한다는 <제8수>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제1수>에서 화자가 '충효'를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었다는 것은 '출'함, 즉 관직에 나아감으로써 신하로서의 도리인 '충'과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효'를 실천하려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제1수>에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었던 삶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제3수>에서는 '비록 (그것을) 못 이뤄도 임천(= 숲과 샘. 또는 숲속의 샘.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기 알맞은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좋으니라'라고 하여, '처'하면, 즉 자연에 은거하면 '충효'를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 한편에는 '임천'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제3수>에서는 '조만간 세사 잊고' '무심 어조(무심한 물고기와 새)'를 '좇으려 하'는 마음을 나타내었고, <제4수>에서는 '강호'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성주(=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를 버리'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어 <제3수>에 나타난 '처'에 대한 소망을 마음 편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제8수>에서 화자는 '부귀는 (오히려) 위기'가 되니 자신은 그러한 위험이 없는 '빈천거(가난하고 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벼슬하지 않는 삶을 의미함)'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제4수>에 나타난 고민, 즉 '출'과 '처' 사이의 '기로(= 갈림길.)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던 고민에서 벗어나 '처'를 선택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가)의 작가는 <제4수>에서 관직에 나아가 '성주를 섬기'는 삶과 자신의 '소락(좋아하는 바)'에 따라 '강호'에 은거하는 삶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갈 데 몰라 하노라'라는 시구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구는 과거 준비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를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제 신명(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직분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저 몰라서'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분수도 모르고 과거 급제를 통해 '부귀'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자조적 평가를 담은 말이다. 이는 과거 급제로 '부귀'를 얻으려고 애쓰던 당시의 삶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지 과거 준비를 계속할지 말지 고민했던 과거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와 (나)의 작가가 과거 급제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가)의 '십 년을 허둥대노라'라는 진술과 (나)의 '궁차익견 큰 뜻으로 / 달 아래 글을 읽고'라는 진술은 과거 공부에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의 작가는 자신이 그렇게 애쓴 것이 '충효'를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고, (나)의 작가는 '부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가)의 '십 년'이라는 시간 표현이나 (나)의 '부귀는 아니 오고 소년(= 젊은 나이.)만 가단 말가'라는 탄식을 통해, 작가가 과거 급제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작가는 <제8수>에서 '부귀는 (오히려) 위기'이니 그러한 위험이 없는 '빈천거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과거 준비를 그만두고 은거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것이며, '부귀는 위기'는 그러한 결심의 이유를 나타낸 시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작가는 자신이 가난한 형편 때문에 '달 아래 글을 읽고 비 뒤에 밭을 가'는, 즉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력을 해야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하여 자신이 겪은 좌절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작가는 <제17수>에서 '도', 즉 '성현의 가신 길'은 '만고에 한가지'이므로 자연에 은거하는 삶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은거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작가는 '지천명 되온 후에 내 신명 내 알'게 되었다는 말로써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어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를 얻는 것이 자기 '신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해

[정답풀이] '달 아래 술 마시니 취중적선이 이 아니며 / 문 앞에 버들 있으니 오류선생이 또 누군가'에는 대구법과 설의법이 함께 사용되어 있다. 이때 뒤쪽 구절의 '또 누군가'만이 아니라 앞쪽 구절의 '이 아니며'도 설의적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취중적선이 이 아니며'는 '취중적선이 이 아니'겠느냐 하고 묻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해당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달 아래 술 마시니' '취중적선'이 바로 자기 아니겠으며, 자신의 집 '문 앞에 버들 있으니 오류선생'이 자기 말고 또 누구이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즉, '취중적선'이나 '오류선생'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은거하는 삶의 풍류를 부각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대구법과 설의법이 함께 사용된 시구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인로의 「누항사」에 나오는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여(有餘, 여유가 있음)하며 / 주머니 비었거든 술병이라 담겼으랴'라는 구절에서도 앞쪽 구절의 '유여하며'를 '유여하'겠느냐 하는 설의적 표현, 즉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③ 화자는 '아이'가 자신에게 '학문'을 배우려고 '폭포수'를 건너 '달을 밟아(달빛을 받으며) 오는' 모습을, '봉래산 청의동자'가 '황정경'을 배우려고 천상의 '은하수'를 건너 '월궁'을 향하는 모습에 빗대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선계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사용된 '은하수(지상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건너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선계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나 '월궁(= 전설에서, 달 속에 있다는 궁전.)' 등 선계를 떠올리게 하는 시어는 화자가 바라보는 정경, 즉 달밤에 '아이'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장면을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한가한 저 노인'이 '아이 불러 꽃 심기고' '청산의 섶'으로 '차 끓이는' 모습을, '영주산 늙은 신선'이 '용을 불러 요초 갈고' '적송 계수'로 '선약을 만'드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선계의 장면에 대응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려 내는 것이며, 또한 자신을 '한가한 저 노인'으로 지칭하여 자신이 포함된 정경을 외부 관찰자가 바라보는 정경처럼 표현함으로써 자기 삶을 평온하게 관조하는 내면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 34] 현대시

➔ **연계 지문 : 고재종, 「세한도」(수능특강 101쪽)**
➔ **서정주, 「추천사 – 춘향의 말 1」**

3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풀이] (가)에서는 제1연에서 '밀어라'가 한 번, 제3연과 제5연에서 '다오'가 총 네 번 쓰였다. '밀어라'는 동사 '밀다'의 명령형이며 '다오'는 보조 동사 '달다'의 명령형으로, 이를 활용한 문장은 명령문이 된다. 화자는 이처럼 명령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갈망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제1연에서 화자는 간절한 부탁을 전하기 위해 청자인 '향단'을 거듭 부르고 있을 뿐, 이러한 호명으로 인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특별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내어 밀듯이'를 '아조 내어 밀듯이'로 변주한 것은 맞지만, 이는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화자가 처한 현실이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반복과 변주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 변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데미', '나비 새끼', '꾀꼬리'는 화자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곁을 떠나고자 하는 지상의 존재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자연물들이지만, 화자는 그것들을 가까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에 미련을 갖게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떨쳐 내고자 하므로, 그러한 소재를 나열하여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그렇게'는 앞 행의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를 가리키는 지시어이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향단'에게 화자 자신을 '밀어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맥락에서 '파도'와 화자가 동질적인 상황(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리는 양태가 반복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게'는 양태의 유사성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일 뿐, 둘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작품의 맥락에서 화자와 달리 '파도'는 다시 떨어져 내릴 것이라는 운명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갖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해 보려는 의지를 갖는 존재로 그려져 있지 않다. '파도'는 원래 감정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 시의 맥락 속에서 의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작품이 '파도'와 화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33.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이해

[정답풀이] [C]에서 '청솔'이 '이장과 함께' 운다고 한 점에 주목할 때 '이장'의 울음은 ('청솔'의 울음과 마찬가지로) 쇠락해 가는 현실 속에서 농민이 느끼는 울분을 나타내는 것일 뿐,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의 '난장 난(난장판이 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인물들은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려 하는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과 '이장'은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시에 그려진 현재의 문제 상황은 '이장'과 이 인물들의 대립이 아니라 '삭바람'과 추위가 표상하는 시련으로 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마을 회관 옆'에 '꼿꼿이 서 있'는 '청솔'의 외양을 제시했다면, [B]에서는 '아픔으로/푸른 눈'을 더욱 감지 못하는 '청솔'의 내면을 제시하여, '청솔'을 고통을 견디며 꿋꿋하게 서 있는 의연한 존재로 그려 내고 있다. ② [B]의 '한때'는 '앰프 방송'을 우렁차게 틀고 활기에 찼던 과거를 의미한다. 이는 [A]의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이 환기하는 현재의 쇠락한 상황과 대비됨으로써, [A]에 제시된 현재 상황의 열악함을 부각하고 있다. ④ [E]의 '삭바람(=삭풍.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은 [C]의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댓바람'이 환기하는 시련의 이미지를 이어받은 것으로, [E]에서는 이것마저도 '빗질하여' 내면의 '서러움'을 '걸러 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삶의 의지로 승화시키는 '청솔'의 자세를 '푸른 숨결' 등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⑤ [E]에 제시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은 시련에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를 표상하며, [F]에 나타난 '까막까치 얼어 죽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떠올리는 화자의 태도는 [E]의 '청솔'이 지닌 면모와 호응하여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꿋꿋한 삶의 자세를 떠올리게 한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풀이] (나)의 맥락상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은 농촌이 미래에 처하게 될 상황이 아니라, 이미 쇠락해 버린 농촌의 암울한 현재 모습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가)는 원작인 고전 소설의 춘향을 재해석하여, 운명적 한계 속에서도 현실을 초월해 '하늘'이 표상하는 이상적 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줄에 묶인 그네는 상승했다가도 다시 하강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달'처럼 '갈 수가 없다'는 화자의 발화는, 결국 떨어져 내리는 그네의 속성과 하늘을 떠가는 '달'의 모습을 대비하여 자신이 처한 운명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③ (나)가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의 모티프를 수용했다는 점은 시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퇴락한 건물 옆에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통해 변함없는 절조를 표현한 김정희의 그림을, 시인은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에 '청솔'이 서 있는 농촌의 풍경으로 변형하여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⑤ (가)의 마지막 연에서 '나를 밀어 올려 다오'라는 춘향의 부탁을 다시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 것은, 제4연에 나타난 운명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실 초월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마지막 연에서 혹독하게 추운 '아침'에 동이 트는 '동녘' 하늘의 붉은빛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한 것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4쪽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풀이] '그러므로 이번~안전에 유의해야겠죠?', '산을 오르는 중에는~주의해야 할까요?', '주소가 없는~전달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36. [출제의도] 강연자의 강연 계획 이해

[정답풀이] 강연자는 해빙 사고와 관련된 등산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해빙 사고에 대해 낙석 발생, 미끄러짐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을 뿐, 계절별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798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라고 통계 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② 등산 전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안전한 등산 경로 확인하기, 수분 손실과 체력 소모를 막아 줄 먹거리 챙기기, 가벼운 준비 운동하기'를 열거하고 있다. ④ 비상 구조 요청 시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학생의 듣기 과정 이해

[정답풀이] 학생이 ㉣에서 국가 지점 번호의 문자와 숫자의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강연에서 제시된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검토한 것은 아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정보 중 충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은 강연 내용을 '등산 전', '등산 중', '응급 상황 시' 세 가지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를 볼 때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여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학생은 낙석의 발생 원인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메모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들었음을 알 수 있다.

[38 ~ 42] 작문－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74쪽

38. [출제의도] 작문 맥락 파악

[정답풀이] (가)는 건의문으로서 중고 물품 장터 개최를 위한 중고 물품 기증 부족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작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물품 기증 부족 문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은 중고 물품 장터의 모든 이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학생회 임원'에게 보내는 건의문이므로 예상 독자는 '학생회 임원'으로 한정된다. ② (가)는 건의문으로 설득하는 글의 유형이다.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을 갖춘 글의 예로는 기사문을 들 수 있다. ⑤ (가)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건의문의 구성 평가

[정답풀이] (가)에서는 추첨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언급했을 뿐, 그 종류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파악

[정답풀이] (나)에서 '학생 1'이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절충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 1'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 1'의 마지막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대화 맥락에 따른 발화 이해

[정답풀이] ㉡에서 '학생 3'은 '네 말대로 물품 구매권을 지급할 때에도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상품 추첨 행사를~단점도 있어'라고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에서 '학생 2'는 '수익이 줄어드는 건 물품 구매권을 지급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야.'라고 ㉠ 직전의 '학생 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터에서 현금만~구매권도 사용되니까 말이야.'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건의문과 연결 지어 토의 단계 파악

[정답풀이] (나)의 대화 참여자들이 물품 기증을 늘릴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때 그 대안들이 기증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2'와 '학생 3'은 각각의 첫 번째 발화에서 (가)의 요구에 공감하며 물품 기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라는 논의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43 ~ 45] 작문

43. [출제의도] 글쓰기의 내용 생성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8쪽

[정답풀이] 2문단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는 낮잠의 피로 회복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체내 피로 물질이 감소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낮잠을 자면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첫째 문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낮잠은 게으른 사람들의 부정적 습관쯤으로 여겨져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일주일에 1~2회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4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권장되는 낮잠 시간대가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3문단 끝부분에서 낮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잠깐 눈을 감고 휴식하는 가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가수면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글쓰기의 점검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8쪽

[정답풀이] 편집부 학생의 조언에 따르면 2문단에 제시된 낮잠의 효과(피로 회복, 기억력 향상, 심혈관 질환 예방)를 모두 언급하면서 독자에게 낮잠을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하고, 3문단에 제시된 주의 사항(오후 4시 이후에 자거나 30분을 넘겨 장시간 자지 않아야 하는 것)을 덧붙이며 마무리해야 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모두 반영한다고 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은 ⑤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글쓰기의 자료 활용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9쪽

[정답풀이] (다)에서 낮잠에 들고 30분이 지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다다른다는 점은,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낮잠을 30분 이상 잤을 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무 때나 낮잠을 잤을 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

•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7쪽

[정답풀이] '선생님께서는 제가 드린 꽃다발을 받으셨습니다.'에는 어말 어미 '-습니다'를 통한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안긴문장 '제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리다'에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나며, 객체 높임의 대상 '선생님'은 안은문장의 주어이다.

[오답풀이] ①두 번째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다. 안긴문장 '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다'에는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모두에 들어맞지 않는다. 어말 어미 대신 조사 '요'가 사용되었으며, 안긴문장 '아버지께서 큰누나에게 밥을 차려 주시다'에는 객체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또한 안은문장의 주어는 '아버지'가 아닌 '큰누나'이다. ④두 번째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다. 안긴문장 '사촌 형이 어머니를 뵙고 오다'에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객체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가 안은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⑤첫 번째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다. 어말 어미 대신 조사 '요'가 사용되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7쪽

[정답풀이] 첫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통해 ㉠에는 객체인 '세존'을 높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어간(묻-)의 끝소리가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ᄋᆞ-'가 오므로 ㉠에는 선어말 어미 '-ᄌᆞᆸ-'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통해 ㉡에는 객체인 '부처'를 높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어간(보-)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ᄋᆞ-'가 오므로 ㉡에는 선어말 어미 '-ᄉᆞᆸ-'이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통해 ㉢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한 아주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문문에서는 선어말 어미 '-잇-'이 쓰였으므로, ㉢에는 '됴ᄒᆞ니잇가'가 들어가야 한다. 네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를 통해 ㉣에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므로 ㉣에는 '-샤-'가 아닌 '-시-'가 들어가야 한다.

37.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6쪽

[정답풀이] '뜨-+-어'가 '떠'가 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 'ㅡ'가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은 특정 용언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이르-'는 '-어'와 만나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오답풀이] ①어간 '하얗-'은 어미 '-아'와 결합하면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간 '굳-'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모두 바뀌지 않았다. 이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②어간 '깨닫-'은 어미 '-았-'과 결합하면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ㄷ' 받침을 가지는 용언은 '얻-+-어'가 '얻어'로 활용하듯이 어간의 'ㄷ'이 유지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ㅡ'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한다. ③어간 '마르-'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르'가 'ㄹㄹ'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어간 '밀-'은 어미 '-니'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한다. 이는 'ㄹ'을 받침으로 가지는 용언에는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다. ④어간 '눕-'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ㅂ'이 '우'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한편 어간 '꼽-'은 어미 '-아'와 결합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는 규칙 활용을 한다.

38.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적용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0쪽

[정답풀이] 제38항을 적용하면, '뜨이어'는 '띄어'나 '뜨여'로 적어야 한다. '뜨이어'를 '띄여'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오답풀이] ②'누이어'는 '뉘어'나 '누여'로 적을 수 있다. ③'싸이어'는 '쌔어'나 '싸여'로 적을 수 있다. ④'시답지 않다'는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되므로 '시답잖다'로 적는다. ⑤'편하지 않다'는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되므로 '편찮다'로 적는다.

39. [출제의도] 지시 표현 이해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1쪽

[정답풀이]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어?'의 '그런'은 화자와 청자가 '어제'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저기'는 발화 현장에서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③'저'는 발화 현장에 있는 멀리 있는 책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④'자동차'가 발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그 대상을 알 수 있으므로 '그'는 ㉡에 해당한다. ⑤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행동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는 ㉡에 해당한다.

[40 ~ 42] 매체-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6쪽

40. [출제의도] 뉴미디어의 특성 이해

[정답풀이]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해시태그를 클릭하여 그와 동일한 해시태그가 부여되어 있는 기사들을 모아 볼 수 있었다. ㉡에는 총 세 개의 해시태그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 해시태그가 부여되어 있는 다른 기사들을 모아 볼 수 있다. 어느 것을 클릭해도 매번 동일한 기사를 모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해시태그가 부여되어 있는 기사들만을 모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학생은 기사를 읽다가 이전 기사(카드 뉴스 제작하기①)에 바로 접근하여 읽어 볼 수 있었다. ④㉣에 후속 기사(카드 뉴스 제작하기③: 게시하기)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은 따로 이 기사를 찾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풀이] '메모 3'에서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지도를 삽입한 것은 이미지를 추가하여 정보를 보충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오답풀이] ①(나)에 따르면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카드 뉴스의 제목을 질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나)에 따르면 카드 뉴스의 본문을 모두 줄글로 작성하기보다 핵심 내용만 간결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③(나)에 따르면 카드 뉴스 독자들은 카드를 빠르게 넘기며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글자의 크기나 색을 달리하여 돋보이게 해서 눈에 띄도록 할 수 있다. ④(나)에 따르면 독자들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기 위해 긴 줄글로 설명하기보다 도식, 도표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사 시작, 참가자들이 걸은 거리 측정, 기부금 환산, 기부금 전달 등으로 구성된 '가치걷기'의 과정을 설명할 때 도형과 화살표를 사용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파악

[정답풀이] ㉤에서는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가 특정 내용이나 문구의 삽입이 카드 뉴스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43 ~ 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65쪽

43. [출제의도]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의 특성 이해

[정답풀이] (나)에서 '현우'는 '희주', '은솔'을 '발표 과제 회의방'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대화 공간에 초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여 온라인 대화 공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음(②)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에서 정보 생산자는 '종이 신문'이라는 매체 자료를 매개로 정보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직접 면 대 면으로 만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가)와 (나) 모두에서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제시된 정보를 수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44. [출제의도] 의사소통 방식 이해

[정답풀이] ㉤이 '간단한 장면 스케치와 함께 영상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는 '현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는 발화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에서 '현우'의 제안을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솔'은 '먼저 어떤 행사를 소개할지부터 논의하'자고 말하며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다들 어때?'라고 하며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②'희주'는 '우리 시에서 ~ 만들면 어떨까?'라는 '현우'의 의견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도 ~ 좋을 것 같아.'라고 하여 제작하려는 영상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희주'는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은솔'의 의견에 대해 한글 자음자('ㅇㅇ')만을 사용하여 동의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④'현우'는 '그러니까 네 말은 ~ 쭉 찍자는 거지?'라고 물으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 될 듯해.'라는 '희주'의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풀이] (나)에서 '은솔'은 '메타버스에서 나무를 심는 활동이 우리 시의 도시 숲 조성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 '메타버스에 조성된 가상의 숲'이 사라지고 '현실에 조성된 숲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연출하'자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타버스와 현실에 조성된 숲의 모습을 나란히 화면에 제시하자는 ④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 띄워 보여 주면 어때?'라는 '희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메타버스에서 ~ 될 듯해.'라는 '희주'의 말과 '아바타를 움직여 ~ 끊지 않고 쭉 찍자는 거지?'라는 '현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마지막 장면엔 ~ 목소리도 넣자.'라는 '희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